

#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본격 가동

### 도교육청, 올해 초중고생 2500여명 대상 진행

### 해외문화체험·현장체험·글로벌 인턴십 등 구성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3학년도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됐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약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초·중·고교 학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해외연수에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턴십 등이 있다.

먼저, 해외 문화체험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차이 이해 및 상호 존중의 자세 함양을 위한 연수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해외 문화체험에 참

가한 학생들은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의식주 풍습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거나 견학하는 활동을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3월 중 각 학교에 해외 문화체험 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4월부터 학교장의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서류·면접심사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견학·학습활동으로 초·중·고 학생 600명이 참가한다. 3월 국제교류 수업 학교로 선정된 도내 41개 학교는 국제 교류 수업에 참여한 학생 630명을 선

발해 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떠난다.

이 외에 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사제동행 해외 역사체험에 고등학교 30명을 장애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초·중·고 학생 30명을 4월 중 선발해 해외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캠프는 학생 맞춤형 심화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로 과학·수학·발명 등에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80명이 참여한다. 글로벌 수학 캠프(고등학교 20명), NASA 글로벌 메이커 페어(초·중·고등학교 20명), 글로벌 기능 인재 연수(직업계고 학생 20명)로 운영된다.

이에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상반기 중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캠프 참가 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이 취업과 연계한 훈련 및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기관을 선정해 전문적 실습과 경험을 쌓게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60명을 선발해 해외에서 6주간 조리·제빵·제과, 헤어 미용 자동차 정비, 용접, 원예조경 등의 분야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그 밖에 1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20개의 학생 해외연수가 추진, 9월 중 해외연수·학생선발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더불어 학생의 긍정적인 선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27일 대학로의 한 호프집에서 학생들과 맥주잔을 부딪히며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호프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 '맥주잔을 기울이며'

### 양오봉 전북대 총장, '호프데이' 행사 마련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7일 대학로의 한 호프집에서 학생들과 맥주잔을 부딪히며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호프데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총장과 학생자치회 임원들과의 대면식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안국찬 대외협력부총장과 이동현 교무처장, 김중석 학생처장, 조희원 국제협력처장, 노원업 학생지원부처장, 강정석 홍보실장 등 보직교수와 학생자치기구에서는 정동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양 총장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학생 복지와 관련한 건의 사항이나 평소 생각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고, 양 총장과 학생 관련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동현 총학생회장은 “이전에 총장과의 대화나 여러 채널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편안한 형식의 대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고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직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하겠다”며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직원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28일 장수 청소년 꿈터 '달빛'에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사진 왼쪽)과 최훈식 장수군수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도교육청 - 장수군, 교육협력 '맞손'

### 청소년 꿈터 '달빛' 개관식 현장에서 협약 체결

### 교육협력 담당 전담부서 두고 농촌유학 등 현안 협조 서 교육감, 장수군의원들과 정책간담회서 현안 논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현장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장수 청소년 꿈터 '달빛'에서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장수군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전북교육청이 시설비를 투자해 건립한 청소년 꿈터 '달빛' 개관식 현장에서 열려 의미가 크다.

이날 변화를 이끄는 장수 청소년이라는 비전과 '꿈·포·강·끼·끈'을 펼치는 우리의 유토피아라는 슬로건으로 문을 연 '달빛'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이다.

건축면적 400㎡, 연면적 1200㎡에 지상 3층 규모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공유주방을 비롯해 동아리방, 스튜디오, 체육활동실, 영상미디어실, 밴드실 등 층별로 다양한 공간이 갖춰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 교육감과 최 군수를 포함해 박용근 도의회 의원, 장수군의원 의원들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장수군은 협약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분야 협력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협력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고 농촌유학과 글로벌 인재양성 등 교육 현안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최 군수는 “서거석 교육감, 허윤종 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 장수군의 교육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교육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 지역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생겨 너무 기쁘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장수군의 회의를 찾아 장정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취업 준비반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8일 스타센터 244호에서 공기업 및 대기업 준비반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재학생 수요를 반영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기업 및 대기업 준비반’을 개설 운영 중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맞춤형 취업 상담, NCS 기반 자기소개서 교육,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또한 활동 우수자에게는 학습 장학금 지원 및 우수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학습 동기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 및 대기업 반에 선발된 학생은 “갈수록 공체가 줄어들고 취업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나의 목표와 준비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취업전략을 짜고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상행 센터장은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대기업 공기업 취업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핵심 인재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육군보병학교 학술 교류 활성화 협약

원광대학교와 육군보병학교가 학술 교류 활성화와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28일 원광대는 육군보병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술발표와 세미나를 비롯해 초빙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국방과학기술 소요 창출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등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

## 군산대 간호학부, 캠퍼스 리스크 맵 제작 활동 벌여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부(학부장 강경아 교수)는 최근 보건안전교육센터(센터장 조혜영 교수)와 함께 캠퍼스 안전진단 프로그램으로 군산대학교 캠퍼스 리스크 맵(Risk Map) 제작 활동을 실시했다.

간호학부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안전 점검 팀을 6팀으로 나누어, 교내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을 탐색했고, 자료를 수집해 Risk Map(위험요인지도)을 제작했다. 그 결과 캠퍼스 건물 내부와 주변, 도로

에서 팀별 3개 이상 총 20여 개의 캠퍼스 안전 위험 요인이 수집되며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학생들 스스로 캠퍼스 환경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 이 자료들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을 주관한 조혜영 교수는 “자신과 친구들이 속한 환경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병원 밖으로 간호 활동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활동이 간호학 전공역량 향상 활동으로 연계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팀 활동에 참여한 4학년 오수환 학생은 “군산대학교의 유일한 보건안전교육센터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처음 시행한 이런 활동이 간호학부 전통으로 자리 잡아 학생이 캠퍼스 안전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많은 학생이 경험했다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산대학교 간호학부는 지난 2010년 간호학과로 신설됐고, 2023년 학사구조개편에 의해 간호학부로 승격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 올해 '전북미래학교' 102곳 운영

### 도교육청, 운영안내·업무설명회 열고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전북미래학교 운영안내 및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2023년 전북미래학교 교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전북미래학교 담당 교육전문직원 뿐만 아니라 전북미래학교에 관심있는 도내 유·초·중등 교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전북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미래학교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미래학교는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서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학생 기초·기본능력 보장 강화 △미래역량 함양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실혁명을 위한 수업 혁신 등에 힘을 쏟는다.

한편 올해 혁신학교 30개교, 혁신·학교 47개교, 전북미래준비학교 16개교를 포함해 모두 102개교가 운영된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북미래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전북미래학교가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영어 트랙 활성화·문화교류 '맞손'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과 협약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28일 국제교류원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국제교류원과 영어 트랙 활성화 및 학생·교수·문화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국제교류원 브라이언 원장은 “최근 한류 열풍이 미국 사회에서도 대단하다”며 “샌디에이고 대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영국 교수는 “우리 학교는 올해 9월부터 영어 트랙을 개설 운영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학생 모집과 함께 해외 파트너 대학들과의 상호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국제교류원 브라이언 블레이크 원장은 협약식을 마친 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호텔 동향과 호텔경영 전략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정은성 기자